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2부〉 코리안 드림 꿈꾸는 그곳에선

⑩ 송출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브로커에 속고 부패관리에 울고…

지난달 16일 자카르타의 '송출 보호청' 직원들이 해외이주 노동자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니 노동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온 구직신청서들을 명부로 작성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송출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심지어 일부 관리들까지 브로커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만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달 16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해외인력 송출 보호청(BNP2TKI)'은 해외 인력송출에 대한 업무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150여명의 직원들은 산더미 처럼 쌓여있는 구직 관련 서류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인니의 '송출 보호청'은 현지 노동자들을 한국 등 해외로 보내기 위한 각종 서류작업을 하는 곳으로, 구직신청서 접수 및 구직명부 작성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인니는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미 2만6천여명이 노동자들이 '한국행'을 택했다.

'송출 보호청' 신설 했지만 정부 관리 '뒷돈' 요구 여전

인니 정부는 이주노동자 급증으로 인해 지난해 기존 '인력이주부' 외에 '송출 보호청'을 신설했다. 해외로의 인력송출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한국 등 송출 국가에 대한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다.

하지만 인니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송출비리는 여전하다. 허위 여권 및 비자 발급은 물론이고, 구직명부 작성 등을 미끼로 '뒷돈'을 챙기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국 소요 비용 〈단위:달러〉

국적	인도네시아	3,673.4
	태국	2,653.5
	필리핀	1,359.7
	베트남	2,980.3
성별	남	2,620.7
	여	2,620.9
평 균		2,633.7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출 보호청'의 운영 또한 기존 '인력이주부'의 담당 국장을 파견하는 등 제도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인니 정부 관계자들은 '노동자들은 불만이 없는 데 한국 정부가 필요 이상 관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고용허가제'가 기존 '산업연수생제'에 비해 현지 공무원들의 권한이 적다는 점에서 불만스런 표정도 역력하다. 고용허가제의 송출 시스템이 '정부대 정부'로 이뤄짐에 따라 현지 공무원들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 탓이다.

구직명부 작성 등의 송출 기간이 타 송출국에 비해 길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인니 정부는 자국의 땅이 넓다는 등의 이유로 인력송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어시험 이후 신체검사나 명부작성 등의 과정에서도 현지 관리들의 '입김'이 여전한 상황이다. 명부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 한국 업주들의 선택 등 입국시기 자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브로커들과 유착…송출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싸

실제 올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명의 인니 노동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명부작성 등 송출시기 조정에 대한 것으로 910달러~1천900달러(한화 95만~198만원)를 줬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인니 노동자의 공식 송출비용은 635달러지만 노동자들이 실제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5~10배의 돈을 쓰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니 노동자의 한국입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3천673달러(한화 383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식 비용에 비해 5.8배나 높은 것으로, 필리핀(1천359달러·한화 141만원)의 3배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 소요비용도 2천633달러(한화 274만원)로 높게 나타났다.

아담(55) 인니 '송출 보호청' 총국장은 "한국은 고용허가제 이후 근무 및 복지환경 등이 타 국가에 비해 월등하다"며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홍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송출과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한국간 남편 잃고 실의에 빠진 꾸스다리니 씨

"한국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외로운 죽음 다시 없어야"

꾸스다니리씨와 딸 아미나

"먼 이국땅에서 홀로 괴로워했을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남편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알라신께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동부 '자와' 지역에서 만난 꾸스다리니(31)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지난해 한국에서 숨진 남편을 생각하니 서러움과 슬픔이 북바쳐오른 것이다.

그녀의 남편인 스틱노(39)씨는 지난 2005년 6월 돈을 벌기 위해 한국땅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2년 뒤인 지난해 6월 싸늘한 주검으로 고향에 되돌아왔다. 자신이 일하던 경남의 한 공장숙소에서 잠을 자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난감 공장서 하루 15시간 격무…숙소서 심장마비死

꾸스다니리씨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는 데 사실이었다"며 "고향에서도 가장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더욱 기가 막혔다"고 울먹였다.

꾸스다리니씨는 또 "남편이 지난해 초 비자 만료로 돌아왔을 때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7살 난 딸의 학자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으로 간 남편의 뒷모습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이 2년 전 '한국행'을 택한 것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남편은 한국으로 들어간 뒤 장난감 공장에서 하루 15시간씩 일을 했다. 오로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낮없이 일에만 매달렸다.

당시 남편이 한국으로 보낸 돈은 매달 500만루피아(한화 56만7천원). 이 돈은 인니 노동자 월급의 3배가 넘는 것이어서 가족들은 한 때 나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은 돈을 많이 받는 달에는 600만~700만루피아(한화 68만~80만원)를 고향에 보내기도 했다. 이 때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돈을 나눠줄 만큼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다.

꾸스다리니씨 "남편은 올해 한국으로 가면서 3~4년만 더 고생해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다"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을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받고서야 남편의 죽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꼬박 3개월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채 물만 겨우 마실 수 있을 만큼 충격이 컸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또 남편의 사망보상금에 대해선 "남편의 죽음과 맞바꾼 돈은 필요없다"며 "당시 1천500만루피아(한화 170만원)를 받았지만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않아 시댁식구들에게 모두 줬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녀는 "한국에 대한 원망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편처럼 먼 이국땅에서 고생하다 죽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고 항상 알라신께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